

안 그래픽스
 디자인·인쇄·싸인
 모든 종류의 인쇄물 및 싸인 제작
 안희탁 스티파노 404.717.9897

SB 건축 & 철공
 House 내부수리 일체
 플러밍, 데크, 전기공사
 용접, 철구조물 수리 제작
 678-599-0200
 방성호 크레센시오

오즈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원동훈(유스티노)
 770-910-5656

Peachtree Physical Therapy
 피치트리 물리치료 클리닉
 470.238.3683 경 토니 (안토니오)
 1300 Peachtree Industrial Blvd., #4108
 Suwanee, GA 30024

음악과 테니스
 한 장소에서!
 김영혜 (가타리나)
 자체 테니스 코트 6개를 갖춘
 전문 테니스 학원 &
 33년 전통과 실력의
 AMA 음악학원 2호점
 1호점 Suwanee
 2호점 Sugarhill
 770-862-4223

SMILE 1 DENTAL GROUP
 김세희 소화테레사
 김상윤 요셉
스마일원치과 678-835-9550
 1120 Peachtree Industrial Blvd, Suite 203, Suwanee, GA 30024

KELLER WILLIAMS
오현정 부동산
 유리안나 Juliana Oh
 Associate Broker
 678-908-4945

리버밴드 오토
 RIVERBEND Tire & Auto Service, Inc.
 번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3322 Peachtree Ind. Blvd. Duluth, GA 30096 Office 770.623.5940

메디케어 / IRA / 연금
생명보험 / 오바마케어
한 재만 (그레고리오) 404-272-6157

VINEYARD REALTY
 “부동산 과 용자를 한곳에서”
 조셉김 678-361-6230
 GMC 용자 켈리김 770-634-5646

김옥경 부동산
 에밀리 김
 Associate Broker
 (C) 770-912-8282
 (O) 404-843-2500

FARMERS INSURANCE
 자동차/집/사업체/생명
 WC/메디케어/IRA/연금
로렌 배 보험
 (모니카)
 470-282-1654
 스와니 아씨 상가

조앤리 부동산
 주택·상가·렌트·관리
 678.770.1136
 E-mail: Realtorjoanne@gmail.com
 Broker Joann Lee (아네스)

오약국
 470.223.4775
 오민환 약학박사 존스크릭 H-Mort 건너편,
 (파비야노) Bank of America 뒷건물

TOP Lawn Maintenance
조경
 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
 404-966-1919 남기원(요한)

박찬규 (레오)
 운동상해 (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

배용자(루시아) 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호보험
 뮤추얼 펀드
678-665-5400

미소 치과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Ste#200
 Duluth, GA 30096
 남상우(시몬), 남수진(세실리아)

스와니 교정 치과
 교정전문 김범수 (니콜라오)
 678-482-9434
 0% Interest | 주말 예약 가능 | 카톡 상담 (suwaneeortho)

강형기 카이로프랙틱
교통사고 전문
 강형기 (사도요한)
 770-495-0014
 678-468-0985
 3585 Peachtree Industrial Blvd #102 Duluth, GA 30096

명품 중식 레스토랑
만천홍
 매운 음식은 습니다
T. 770.454.5640
 5923 Buford Hwy, Suite#105 Doraville, GA 30340

770-614-1738
성물점 GIFTS
GOLD-CROSSES-REPAIRS
 십자가, 선상, 금, 은, 주문제작
 성화, 묵주, 책, 신발수선
 Suwanee Wal-mart 내 리-서츠 프린팅
 3255 Lawrenceville Suwanee Rd, #L



애틀랜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홈페이지: http://www.kmccga.com
 E-mail: kmccga.office@gmail.com | Tel 770.455.1380 Toll free 888.222.9218 | Fax 770.455.4262

제 2107호 2021년 8월 8일 연중 제 19주일 발행인: 이영석 세례자 요한 신부

- † 미사 시간
 - 일: 오전 8시 30분
 - 오전 10시 30분 (교중미사)
 - 오후 1시 (영어미사) 매일
 - 첫째, 셋째 주일 봉헌
 - 월: 없음
 - 화: 정오 12시
 - 수: 오후 7시 30분
 - 목: 오후 7시 30분
 - 금: 정오 12시
 - 토: 오후 7시 (특전미사)

† 고백 성사
 미사 시작 20분 전

† 혼인 성사
 6개월 전까지 사무실로 신청

† 유아 세례 / 병자 성사
 사무실로 연락

† 사무실 시간
 일: 오전 7시 30분-오후 3시
 월: 휴무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 오전 10시-오후 5시

† 본당신부
 이영석 세례자 요한
 Johann Young-seog Lee, S. J.
 20seog@hanmail.net

† 사목회장
 성정창 풀젠시오
 Fulgentio Jeong Seong
 470-296-1030
 kmccga.seong@gmail.com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 요한 6,41-51 >

성 가 입당: 17 봉헌: 215/212 성체: 500/165/186 파견: 2
 제 1 독서 열왕기 상권 19,4-8 <엘리아는 그 음식으로 힘을 얻어 하느님의 산에 이르렀다.>
 화 답 송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제 2 독서 에페소서 4,30-5,2 <여러분도 그리스도처럼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요한 6,41-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영 성 체 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2021년 AA 기금 납부 현황 (8월 1일 현재)

교구 할당액: \$57,900 누계 약정액: \$24,520

금주 납부액: \$1,095 누계 납부액: 39,940 달성율: 69.0%

2021 AA 기금 금주 납부자: 19명

김봉섭 김상순 김영길 김영철 박근우 박연순 박정미 박평하 배정희 서재욱 양생환 원동훈 이상엽 이상호 이종상 임혜수
전용희 최인영 최준태

-교우분들의 지속적인 AA 기금 약정을 부탁드립니다.

< 유아 세례식 >

7월 31일(토) 오후 3시에 본당 신부님의 주례로 대성전에서 서윤정(릴리안), 서영진(테오도르)이상 2명의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 장례 미사 >

7월 30일(금) 오후 12시에 故 이찬주(루시아)님의 장례미사가 대성전에서 있었습니다.



< 성모회 물품 판매 >

성모회에서 주일 오전 미사 후 과일 판매를 하였습니다.



나눠 행복한 세상

< 요한 6,41-51 >

배영길 베드로 신부

우리의 아이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잘 교육받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꿔 봅니다.

나눠
행복한 세상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이루어지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는 말씀 때문에, 자기네들이 잘 아는 “요셉의 아들 예수” 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면서, 무슨 뜻인지 같이 멀쩡한 사람인 자신이 빵이라고 하나? 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린시절부터 알아 온 예수와 그 부모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라는 표현을 보면 그들은 이웃하고 사는 고향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공생활 이전의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최근에 병자들을 낫게 하고, 오병이어와 물위를 걷는 기적의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도 그저 놀라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놀라움은 자신들이



오늘 복음 산책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 요한 6,41-51 >

알고 있는 선입견에 기댄 채 그저 요술을 부리는神通한 능력의 특별한 인간으로 받아 드린 듯합니다. 오늘 저에게 비취진 예수님의 천상 양식이라는 선포는 마음이 굳어 있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믿음 안으로 초대하기 위한 간곡한 연서 같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잘 앎”을 전제해야만 가능 해 진다는 것을 다음 구절로 알려 주십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로 온다” 이 구절에서 보듯이 열심

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로써 우리 삶의 매순간 하느님의 가르침과 지혜를 구하며,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일치 할 때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가? 바로 이 물음은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아내와 피붙이적부터 키운 자식들을 향하고, 교우들과 이웃을 향해 “얼마나 그들을 아는가?”로 이어지고, 마침내 “얼마나 사랑하는가?”의 물음으로 메아리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 17장 3절)

성찰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